

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 만족도 및 체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윤 혜 미 *

본 연구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부모들을 실험·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아동양육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의 요인이 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역할만족도, 체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관찰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와 자기발견,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 훈육방법의 습득, 문제해결법,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과 이용하기 및 서로 도움주기 등으로 구성된 8주간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사후 검사에서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체벌 수준, 부모역할만족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세 가지 변수 모두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을, 즉 프로그램 수료 후 자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부모역할에 보다 만족하게 되었으며 체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로 선회하게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도 자녀에 대한 태도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사회적 지지의 향상에 따라 이 두 변수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연구비에 의해 지원된 것임.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였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지지와 별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벌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에서 오는 spillover 효과라기보다는 이 집단에서는 아동훈육의 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 서론

1)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비행과 폭력 등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어 사회의 폭력에 대한 허용성을 높인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아동복지문제이다.

2000년 1월 21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가개입을 명문화하여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치료 및 보호와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이라는 치료적 측면뿐 아니라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정의 보호가 필수적인 아동기의 특성 때문에 가족기능의 회복과 강화라는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예방적 접근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발생을 낮추려는 것이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경향도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입장으로, Finkelhor(1988)는 아동학대 예방은 연관된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개입전략의 하나이며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우선 순위가 높은 연구분야라고 지적하였다.

아동이 학대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절차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Britner와 Reppucci(1997)는 아동학대예방의 효과적인 개입전략으로 첫째, 부모능력 강화 서비스 특히 부모교육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둘째,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을 확보하는 등 자원적 원조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키며 셋째, 아동학대 인식제고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대중을 교육한다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예방적 접근의 구체적 대상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이며 특히 자녀의 양육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주요 표적이 된다. 이러한 전략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 그리고 이미 아동학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 문제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계획될 수 있다.

그런데 Straus의 갈등해결척도(Conflict Tactics Scale)를 이용한 최근의 전국규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43.7%인 것으로 추산되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재연, 2000). 전국 5개 지역 1,094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신체적 학대 발생률이 23.5%이고 연간 1회 이상의 체벌률은 74.6%, 연간 20회 이상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률도 각각 19.0%와 20.2%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학대, 방임, 그리고 고함지르기와 욕하기 등 정서학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방임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구 상황에 맞게 제작된 갈등해결척도를 그대로 적용한데서 나타나는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조사대상의 43.7%의 아동학대발생률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 관계에 긴장이 높고 부모들이 효과적인 자녀양육의 기술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가정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훈육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를 유발할 위험을 증가시킨다거나 가족의 사회적 고립이 중요 요인이라는 실증적 연구결과(Berkowitz, 1993; Murphy and O'Leary, 1989)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방임문제에 있어서는 사후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이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에 기여하는 요인은 수십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부모 편에서의 요인들에 대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부모에게 특별한 병리적 특성이 없는 경우 부모자녀관계의 성격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만족도, 그리고 체벌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은 부모로서 가족과 아동 관리기술, 자녀와의 의사소통, 훈육의 일관성과 훈육방법 등 부모됨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및 가족의 사회적 고립정도에 의해 그 정도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13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집단에 대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역할만족도, 체벌에 대한 태도가 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지의 결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예방적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8주간의 부모교육 및 사회적 지지 인식과 활용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2.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 유발요인과 예방

아동 양육이 부모를 포함한 대가족과 지역사회에 의해 공유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도시화된 생활은 지역사회로부터 가족의 소외를 가져와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Garbarino, 1987).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치료적 접근과 예방적 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치료적 접근은 우선 경찰 등 사법기관과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면서 치료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신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행동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 프로그램은 이미 일어난 학대나 방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자녀학대자”로 낙인찍힌 부모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이후의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안혜영, 1999). 사실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치료와 통제가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가정에는 이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반복적인 폭력적 반응이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Browne & Herbert, 1997). Hyman(1978)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나 방임의 피해아동의 40~70%가 이미 한번 이상 같은 문제로 서비스를 받은 아이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접근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표 1>은 아동학대의 촉발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어서 모든 경우

에 해당되는 한 가지 유용한 접근모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원가정이 원만히 유지되면서 부모가 아동을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술과 훈련을 제공받고,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도 있는 갖가지 환경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의 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부모교육과 아동학대예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관성은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녀양육에 대한 개입(*involvement*)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Britner & Phillips, 1995; Newberger &

〈표 1〉 아동학대 유발요인

구 분	내 용	용
부모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 엄격하고 지배적인 성향 우울증 자기이해부족 아동기 신체적 폭력의 목격 미혼부모 부적절한 가족 및 아동관리기술 비일관적 훈육 부모역할과 책임의 과중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격적 충동을 다루기 어려움 사회기술부족 약물남용 아동기 피학대 경험 아동기 애착 결여 사회적 소외 부모역할 기술 결여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 분노 통제력의 부족
아동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행동/hyperactivity 조산 질병 부모가 혐오하는 성인과의 유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치 않는 임신 신체적, 발달적 장애 부모 성격과의 불일치
가족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 아동수의 과다 혼란한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가족 연년생 주거의 혼잡성
스트레스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출생 이혼/별거 급사/만성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직 가까운 친구, 가족원의 사망 갑작스런 재정적 곤란
사회문화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문화 아동양육에 있어서 성역할의 전형화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가족의 사생활이나 개인권리에 대한 극단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벌의 허용성 매스미디어의 폭력성

white, 1989). 부모기능은 부모와 아동의 특성과 그 가족이 처한 스트레스 및 지지라고 하는 환경적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아동 발달이나 양육기술에 대한 지식이 적고 아동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ro, 1988; Newberger & White, 1989).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아동의 도전적인 행동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학대를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되지만 부모기에 대한 교육이 가정과 제도교육 체계에서 등한시되고 있어 성공적인 부모가 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 자녀양육에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따르고 부모가 원하는 만큼을 자녀에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따를 수 있다. 게다가 급속한 사회변화는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가정생활을 침저하는데, 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 건강문제, 아동학대, 그리고 이혼은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자 동시에 증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는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하다. 현은강(1994)은 모의 역할수행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받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녀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도움의 한 유형이 부모교육인데 부모교육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자신을 돌이켜 검토해 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말한다. 부모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부모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하여 자녀 양육의 즐거움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녀 학대를 예방하는 데 있다(McInnis-Dittrich, 1996).

전통적인 부모훈련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접근(예: PNP)은 특정행동의 강화와 소거에 초점을 둔다. Rogers 류의 PET는 부모가 아동의 사고와 감정을 인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행동의 중재자로서 감정을 사용한다. STEP을 포함하는 Adler 류의 접근은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행동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와 협조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행동의 통제를 위해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를 이용하게 한다(McInnis-Dittrich, 1996).

이중 Gordon의 부모효율성 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관건임을 주장하면서 부모-자녀 관계

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아니라 아동보다 큰 힘을 가진 부모의 행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 힘의 남용을 예방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나-전달법, 반영적 경청, 양승법에 의한 갈등해결 등의 기법을 소개하였다.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은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아동양육에서의 적절한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비폭력적이고 논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녀양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효과적이고 비폭력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정원·이기숙, 1999; 류지후, 1996; 연미화, 1994; 이영분, 1990). 최근에는 생태학적이고 다차원적이며 가족수준에서의 접근을 원칙으로 한 통합적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Belsky & Vondra, 1989; Stillwell & Manley, 1990).

3) 사회적 지지와 아동학대예방

가족의 사회적 고립은 아동학대 예측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복잡한 현대사회 현실에서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배우자, 확대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조언, 지도, 칭찬,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많은 연구들이 배우자, 부모, 친구 및 친지처럼 심리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들에 보다 잘 적응하고 보다 나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가 풍부했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다 양질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hoits, 1985; Wahler, 1980). 사회적 지지는 올바른 양육행동을 강화하고 잔혹하거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elsky, 1984; Garbarino, 1977). 국내연구에서도 이은혜(1997)는 모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오는 정서적 지원이 많다고 느낄수록 어머니들의 자녀 돌봄이나 인지적 자극의 제공이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하고 있다. 도현심(1997) 등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고, 황영주(1996)도 사회적 지지는 아동에 대

한 부모의 온정성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모는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조언과 지도를 받거나 실제로 임시적인 탁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양육행동에 대한 태도와 부모로서의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태도와 부모 자녀 상호작용 및 아동의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있는 부모에게서도 관찰되었고(Garbarino, 1977; McMurty, 1983; Thompson, 1995), 빈곤가족에게서도 관찰되었다.

아동학대와 관련, 사회적 지지 중에서 특히 중요한 지지관계는 배우자로부터의 지지에서 온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결혼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Belsky et al., 1984; Meyer, 1988). 배우자 지지 (*spousal support*)는 배우자가 제공하는 따뜻함, 격려,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관계의 만족도가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지적인 남편은 부인의 양육 스트레스를 원조하고 이는 결혼만족도를 높여주어 부인의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양육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즉 결혼관계의 만족도는 개인의 정서적 긴장이 학대적인 부모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imons, Whitebeck, Melby & Wu, 1994).

3. 연구 방법

1) 연구설계와 진행과정

본 연구는 13세 이하의 아동을 둔 빈곤지역 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8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부모역할 만족도, 체벌에 대한 태도라는 세 가지 변수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를 파악하였다. 연구설계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1회씩의 사전 사후조사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은 1·2차로 집단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차 집단은 경북의 중소 도시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자녀를 보내

거나 본인이 직접 참가하고 있는 어머니들 14명으로 시작하였으나, 4회째에 2명이 탈락하고 6회째에 1명이 탈락하여 11명이 부모교육을 이수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회복지관은 도시 외곽 신 시가지의 영구 임대아파트 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참가자들의 경제 수준은 중하위였다. 비교대상으로 설정된 통제집단에 속한 어머니들 역시 같은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자녀나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10명이었다. 제2차 집단은 도시외곽의 종교단체 부설 어린이집의 학부모 12명으로 9명이 최종분석의 대상이 되었으며 통제집단 역시 같은 어린이집의 학부모 8명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아동의 성별, 연령, 경제사회적 조건, 부모의 건강과 결혼만족도,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를 측정하여 집단을 선별하였다. 1998년 3월부터 6월까지 집단별 8주씩 16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첫모임과 모임이 종료된 8주째에 각각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제1 단계 : 집단 모집

- 제1 집단 : 지역사회복지관 공고 후 신청자 모집
- 제2 집단 : 어린이 집 공고 후 신청자 모집

· 제2 단계 : 실험 · 통제집단 선별

- 모의 결혼만족도(IMS 20문항), 정신건강(SDS 20문항) 측정.
-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K-CAAS 15문항) 측정
- 사회경제적 조건, 아동의 성별, 연령

· 제3 단계 : 사전 조사

- 자녀에 대한 태도(IPA 25문항), 부모역할만족도(KPS 3문항), 체벌에 대한 태도(고성혜 8문항), 사회적 지지(MSPSS 12문항) 인지도 조사

· 제4 단계 : 프로그램 실시

- 각 집단별 8주, 주 1회당 150분간 부모교육, 토의, 과제부여
- 매회기 30분간 상담시간
- 5, 6, 7회기 프로그램 실시 후 지역사회기관 방문

· 제5 단계 : 사후조사(내용 - 사전조사와 동일한 내용)와 종결 및 평가

2) 프로그램 내용

이 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에게 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해 줌으로써 아동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대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녀의 행동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아동을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대자들은 아동의 능력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훈육과 처벌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학대적인 부모들은 비학대적인 부모에 비해 아동 양육을 복잡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간단한 작업이라고 행각하며 아동의 능력과 욕구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보인다(Feshbach, 1980). 학대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있어 체벌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을 나타내었으며(Kelley & Elliot, 1990) 사회적 고립이나 도움의 부재를 호소한다. 따라서 보호요인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의 중요성은 Tracy(1987)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이재연(200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들의 아동양육은 언어적 폭력과 체벌, 소극적인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학대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의 예(Dodge, Pettit, Bates, 1994)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혹독한 훈육방법, 냉담함, 그리고 욕설과 고함지르기 및 체벌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기술, 연령에 따른 아동 훈육방법과 사회적 지지의 개발을 통해 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변화, 체벌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감소, 따뜻함의 표현,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증대를 기하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과 기능 및 내용을 파악하였고, 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기간 내내 개인별 상담에 응하였으며 집단 자체가 서로에게 지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공식적 사회적 지지망으로서 지역사회 부녀복지관, 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원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직접 방문, 담당자와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개입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개입프로그램의 내용

회 기	목 표	내 용
사전모임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집단 성원의 목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 설명 - 사전 검사 실시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즐거움 ◦ 사회적 지지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어린 시절 회상과 이해 - 자녀행동에 대한 태도 인지 - 자녀양육에 도움주는 사람, 환경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이해 ◦ 문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나 - 부모가 자녀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나 - 문제소재의 확인
4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발달에 따른 능력과 욕구 - 아동발달과 부모의 기대 - 기대의 충족 여부에 따른 부모의 반응
5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의사소통 - 자녀의 의사소통 욕구에 대한 공감 - 긍정적인 반응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의 걸림돌 경험하기 - 반응적 경청과 실습 - 나 전달법과 실습 - 긍정적 반응 - 부녀복지관 견학, 프로그램 소개
6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아동 연령에 따른 훈육기술(한계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재정립 - 무시 - 논리적 결과 - 타임 아웃 - 청소년 수련관 견학, 프로그램 소개
7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방법 ◦ 사회적 지지망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을 해결 가능한 문제로 전환하기 - 문제해결 5단계 - 사회적 지지의 확인 - 사회복지관 견학, 프로그램 소개
8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평가의 3단계 - 자유토론 - 사후검사 실시

3) 측정도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조건을 유사하게 유지하기 위해 대상 어머니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결혼만족도,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를 측정하였다. 정신건강상태의 측정을 위해서는 Zung(1965)의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를 사용했는데, 4점 척도 20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인정되고 있다. 또 선행연구에서 중요

변수로 지적된 배우자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Hudson이 제작한 25문항의 결혼만족도 척도 IMS(Index of Marital Satisfact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계수 .96으로 매우 뛰어난 내적 타당도를 가지고 있으며 100점 만점에서 30점 이하는 문제없음, 30점 이상은 문제의 소지 또는 문제가 있음, 70점 이상은 결혼관계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의 존재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의력 결핍 - 과잉행동(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을 측정하였는데 Lambert, Hartsough, Sandoval(1990)이 개발한 CAAS를 한미경(1994)이 한국형으로 보완한 K-CAAS 가정용 15문항을 선택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Hudson(1992)의 IPA(Index of Parental Attitudes) 25문항을 사용하였다. IPA는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문제의 정도(extent), 심각성(severity), 그리고 범위(magnitude)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아동의 나이에 상관없이 .97의 뛰어난 신뢰도와 내용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수는 0에서 100까지 부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WALMYR 사정척도에서는 30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70점 이상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므로 폭력을 포함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임상적 진단을 내리고 있다.

부모의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로는 Schumm과 Hall(1985)의 KPS(Parental Satisfact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는 .78에서 .85 사이로 보고되었다.

세 번째 척도는 체벌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알아보는 것으로써, “학대는 체벌이 그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간 것”이라는 지적처럼 체벌과 학대와의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척도는 고성혜(1992)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되 8개 문항을 선별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Zimet 등의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가족, 친구 및 중요한 타자로부터의 인식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로 선행연구(Zimet et al., 1988)에서 .91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는 실험집단의 사례수가 20사례, 통제집단 19사례에 그치고 모수검증의 가정들을 이탈해 있어 비모수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동질성 확보를 위한 우울증, 결혼만족도, 아동의 ADHD는 맨-휘트니 검증(Mann-Whitney U test)을 이용하였는데, 통제집단은 처음 25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실험집단과 차이가 많이 나타난 6인을 제외한 후 19인으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 만족도, 체벌에 대한 태도는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값을 이용한 윌콕슨 검증방법(Wilcoxon matched-pair signed-ranks test)을 이용하였다. 우선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값을 구하고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값을 구한 뒤 이를 비교하여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려 하였다. 또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 만족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반응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계수(Spearman's rho)를 구하였다.

4. 결과 분석

1)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참여자는 13세 이하의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 중 어머니들로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중하에 속하며 최종 분석대상 20명의 최고학력은 고졸이었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 대졸자가 1명 있었으나 중도 탈락하여 고졸 11명, 중졸 10명이었으며, 대부분 전업주부로 일부는 집에서 간단한 시간제 부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불규칙하다고 하였다. <표 3>은 집단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중앙치 검증(The Median Test)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참여자의 소득 수준, 교육수준과 대상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부모역할 만족감 및 체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특징

분 류	실험집단(계 : 20명)			통제집단(계 : 18명)		
소득수준	전원 상, 중상, 중중, 중하, 하의 5분류 중 중하로 응답			중하 16명, 하 2명		
교육수준	중졸	고졸		중졸	고졸	
	8명	12명		8명	10명	
연령	20대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
	6명	11명	3명	5명	10명	3명
대상 자녀 연령	유아	초 저학년	초 고학년	유아	초 저학년	초 고학년
	9명	8명	3명	8명	6명	4명
대상 자녀 성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12명		8명	11명		7명

2) 집단간 모의 결혼만족도, 우울증 및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

배우자와의 결혼만족도는 WALMYR의 기준에 따르면 30점 미만은 만족스러운 관계, 30~60점은 임상적 문제가 있는 수준, 70점 이상은 심각한 관계 이상이나 가정 폭력이 있는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실험집단의 경우 61.1점, 통제집단의 경우 59.4점으로 결혼관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Mann-Whitney 검정결과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참여한 어머니들의 우울증 정도는 SDS 척도에서 20에서 80까지의 점수 범주 중 50점에서 59점은 경도 - 중등도 우울증, 60점에서 69점은 중등도에서 심한 우울이며 70점 이상은 심한 우울로 나뉘는데(Fisher & Corcoran, 1994)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평균 43.76, 통제집단은 평균 44.21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에서 50점 이상을 기록한 성원은 각기 2명씩이었으며 우울증 정도의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또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임상적 보고가 활발한 주의력 결핍 - 과잉행동을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산만하고 지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여 다투는 일이 많고 사고에도 노출되기 쉬운 특징을 보여주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부모, 교사, 또래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Sandberg, 1996). 따라서 이런 아동들은 부모 자녀관계나 부모역할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체벌을 유발하는 경향

이 있다. 점수가 33점 이상이면 임상적 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되는데 실험집단 부모의 아동에 대한 ADDH 평균점은 23.4, 통제집단은 평균 24.1점으로 나타났고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아, 두 집단이 거의 동일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Mann-whitney U test 결과 유의도 0.05 수준의 일방검증에서 $N_1 = 20$, $N_2 = 19$ 일 경우 U와 U'의 기각값인 130/250으로 볼 때 세 변수 모두 영가설 영역 내에 U와 U'값이 위치하고 있어 두 집단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음을 보여주었다.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 만족도, 체벌에 대한 태도의 변화

먼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IPA 지수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이 각각 45.71, 38.78로서 임상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WALMYR의 cutting point 70을 넘는 구성원은 없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30을 넘어서, 자녀와의 관계에 약간씩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집단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30점 이하가 4명, 31~40점 대가 6명, 41~50점 대가 7명, 그리고 60점 이상 3명으로 41점에서 60점 사이에 분포한 8명은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역할 만족도는 실험·통제집단의 평균이 14점 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같은 척도로 미국에서 조사한 84명의 한국 어머니의 평균이 17.4점이었음을 고려해보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 체벌에 대한 태도는 8점에서 32점 사이의 응답범주(점수가 높을수록 체벌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실험집단은 25.75, 통제집단은 24.92로 매우 허용적이라고 판단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측정치를 비교해보면 <표 4>와 같다.

세 가지 변수 모두에서 실험집단은 양방적 검증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프로그램 시행 결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태도가 덜 부정적이 되어 갈등이 감소했으며 부모역할에 좀더 만족하게 되었으며 체벌에 대해서는 덜 허용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도 부모역할 만족도는 유의수준 0.05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실험 및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측정치에 대한 윌콕슨 T값

변수	집단분류	사전·사후	평균	점수 range	윌콕슨 T값 순위차이수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IPA 척도)	실험집단 (N=20)	사전검사	45.71	25 - 63	T=20*** (N=18)
		사후검사	36.41	24 - 55	
	통제집단 (N=18)	사전검사	38.78	27 - 50	T=36 (N=17)
		사후검사	38.55	29 - 49	
부모역할 만족도 (KPS 척도)	실험집단 (N=20)	사전검사	14.8	9 - 19	T=5*** (N=14)
		사후검사	16.6	10 - 20	
	통제집단 (N=18)	사전검사	14.17	10 - 18	T=17** (N=14)
		사후검사	14.50	12 - 18	
체벌에 대한 태도	실험집단 (N=20)	사전검사	25.75	20 - 28	T=1*** (N=16)
		사후검사	21.50	19 - 24	
	통제집단 (N=18)	사전검사	24.92	18 - 27	T=37 (N=15)
		사후검사	24.17	18 - 26	

유의수준 : * 0.1, ** 0.05, *** 0.01

4) 사회적 지지의 변화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 연계망으로부터의 지지의 취득 가능성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Powell, 1980).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고 사정해야 하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가족들은 위기시에 공식적인 조직으로부터의 원조를 청하기 전에 '자기들만의' 연계망에 도움을 청한다(Britner & Reppuci, 1997). 이러한 비공식적인 원조체계는 대개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족생활의 경우 특히 배우자로부터의 지지 여부가 효과적인 대응능력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의 지지는 사전 검사에서 실험집단은 7점 만점에 4.02, 통제집단은 4.15로서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평균 5.58점에 크게 못미쳤다. 사후검사에서 사회적 지지는 실험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상승(m=5.02)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 집단에 대한 인지도의 상승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표 5〉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와 아동학대의 관계

실험집단 (N=20)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회적 지지	자녀에 대한 태도	$\rho = .73^{***}$	$\rho = .79^{***}$
	부모역할 만족도	$\rho = .50^{**}$	$\rho = .52^{**}$
	체벌에 대한 태도	$\rho = .29$	$\rho = .27$
통제집단 (N=18)			
사회적 지지	자녀에 대한 태도	$\rho = .58^{**}$	$\rho = .55^{**}$
	부모역할 만족도	$\rho = .41^*$	$\rho = .43^*$
	체벌에 대한 태도	$\rho = .33$	$\rho = .27$

* $\alpha = .10$, ** $\alpha = .05$, *** $\alpha = .01$

지속되는 동안 제공된 개별적 상담과 집단자체가 중요한 지지집단으로 역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지로 제1집단은 프로그램 종료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매달 1권씩의 자녀양육관계 서적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5) 사회적 지지와 아동학대의 관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 만족도, 체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계수(Spearman's rho)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는 자녀에 대한 태도나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체벌의 사용에 대한 태도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가정의 아동학대 유형은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특히 아동과 접촉빈도가 높은 어머니들이 학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계층에서 학대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

이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아동양육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의 요인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역할만족도, 체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관찰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참여자들의 자녀에 대한 체벌 허용 태도 수준은 매우 높았으며(8~32점 범주에서 평균 25.75), 부모역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평균 14.8) 자녀에 대한 태도는 평균이 45.71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WALMYR 점수인 29점을 15점 이상 상회하여 어느 정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사회적 지지 평균은 4.02로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는 결혼만족도의 경우 평균이 60점대로 나타나 배우자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수대의 경향성은 통제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어 두 집단의 동질성을 증명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와 자기발견, 의사소통 기술 훈련과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 훈육방법의 습득, 문제해결법,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과 이용하기 및 서로 도움주기 등으로 구성된 8주간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사후 검사에서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체벌 수준, 부모역할 만족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세 가지 변수 모두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을, 즉 프로그램 수료 후 자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부모역할에 보다 만족하게 되었으며 체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로 선회하게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통제집단은 부모역할 만족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는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두 변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자녀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 만족도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는 .73~.8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으며 사회적 지지도 자녀에 대한 태도와 .55~.79에 이르는 강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지지나 결혼만족도와 별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벌에 대한 태도는

결혼관계나 사회적 지지의 부족에서 오는 spillover 효과라기보다는 아동훈육의 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역할 만족도도 두 변수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데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의 관계가 .48~.59로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 만족도의 관계인 .41~.52보다 일관성있게 높게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결혼만족도에서는 평균점이 약간 낮아졌지만(61.1에서 59.7)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교육의 활성화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부모역할 만족도 등은 자녀양육의 적절한 기술과 기대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도 비롯되는 것으로, 부모교육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부모교육은 부모에게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수립하고 지속시키는 방법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활기술과 사회기술 훈련모델에 기초하여 상호작용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즉 문제해결, 의사소통, 상호작용, 한계설정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과 아동양육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전파는 지역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보육기관과 학교 학부모회를 통한 부모교육의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중에 부모교육이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효과성 측정이 어렵지만 보편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확산이라는 점에서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1차 예방의 경우 대상자들의 저항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참여의식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 지역사회 교육은 물론 대중매체를 통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전반적으로 체벌에 대한 허용성이 높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하므로 체벌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보다 온정적이고 효과적인 자녀 훈육방법을 널리 교육해야 한다. 학대는 체벌이 점점 더 그 수위를 높여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체벌은 체벌자의 감정과 체벌 행위를 완벽하게 분리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결코 효과적인 자녀 훈육수단이 될 수 없다. 체벌의 폐해와 대안적인 훈육수단을 사회전체에 널리 홍보하여 전반적인 체벌수준을 낮추도록 해야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아동학대를 가속화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역

사회 연계망의 활성화(network facilitation)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개발과 이용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의 개발은 공식·비공식적 연계망을 통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자원의 발견과 이용으로 이 개입방법은 현존하고 있는 또는 잠재적인 지지의 자원을 사정하고 보충하며 구성원을 훈련하고 단기보호나 탁아, 교통편 제공 등 지지적인 과제와 활동들을 부여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를 유발하는 기술은 부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과 자아강화기술을 강화시킨다. 이는 부모를 동료 연계망 또는 자조집단에 연결해 주는 것으로 전통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서비스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지지 연계망을 양성하고 강화시키는 새로운 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으며(Tracy, 1987) 정서적, 정보적 및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자조집단, 지역사회 연계망 등은 가족과 부모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곤란에 처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며 이웃에 비공식적인 연계망을 설정하여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나 환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 지지 개입기술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적 지지 개입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대해 자연적 연계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의 삭감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 개입은 욕구를 만들어낸 요인을 무시하고 적응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부모교육 외에도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 만족스러운 결혼생활과 배우자로부터의 지지가 부모-자녀 관계의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결혼관련 프로그램들을 보다 다양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규정된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한 통제집단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수행 당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규정이 강화된 현재 아동복지법이 통과되기 이전으로, 학대가정을 발견하여 프로그램 수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자발적인 부모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사용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 참고문헌 ■

- 김정원·이기숙. 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 20권 3호, pp. 183~197.
- 도현심·김지신. 1997. "사회적지지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6호, pp. 127~135.
- 류지후. 1996. "유아를 위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혜영. 1998. "어머니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측 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연미희. 1994. "한국부모에 대한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성 평가."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혜미. 2000. "전문아동보호기관의 활성화 방안."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학술심포지엄, pp. 23~47.
- 이영분. 1990. "부모역할훈련을 위한 한국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혜. 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3호, pp. 31~15.
- 이재연. 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연구."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 한미경. 1994. "한국판 아동용 주의 및 적용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일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영주. 1996.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사회적 지지가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pp. 83~96.
- Belsky, J. & Vondra, J. 1989. "Lessons from Child Abuse: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in Ciodhetti, D. & Carlson, V. (eds.). *Child Maltreatment*. NY: Cambridge Univ. press.
- Berkowitz, L.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Britner, P. A. & Phillips, D. A. 1995. "Predictors of Parent and Provider Satisfaction With Child Day Care Dimensions: A Comparison of Center-Based and Family Child Care." *Child Welfare*, 74, pp. 1135~1168.
- Britner, P. A. & Reppucci, N. D. 1997.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Evaluation

-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Teen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6(2). pp.165~175.
- Browne, K. & Herbert, M. 1997. *Preventing Family Viol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Daro, D. 1990. *Confronting Child Abuse: Research for Effective Program Design*. New York: Free Press.
-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4. "Socialization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Conduct Problems." *Child Development*. 65. pp.649~665.
- Faller, M. 2000. *Domestic Abuse and Child Maltreatment*. ICWTP Workshops.
- Feshbach, N. D. 1975. "The Relationship of Child-Rearing Factors to Children's Aggression, Empathy and Related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Behaviors." in deWit, J. & Hartup, W. W. (eds.). *Determinants and Origins of Aggressive Behavior*. The Hague: Mouton.
- Finkelhor, D. 1988. *Stopping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Friedrich, W. N. 1979. "Predictors of the Coping Behaviors of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9. pp.31~42.
- Garbarino, J. 1987. "The Price of Privacy in the Social Dynamics of Child Abuse." *Child welfare*. 56. pp.565~575.
- Hyman, C. A. 1978. "Non-Accidental Injury." *Health Visitors*. 59. pp.42~48.
- Kelley, M. L. & Elliot, S. N. 1990. "Acceptability of Positive and Punitive Discipline Methods: Comparison Among Abusive, Potentially Abusive, and Nonabusive Pa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14. pp.219~226.
- MacMillan, H. L. et al. 1993. "Primary Prevention of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pp.835~856.
- McMurty, S. L. 1985. "Secondary Prevention of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A Review." *Social Work*. 29. pp.42~48.
- Meyer, H. J. 1987. "Marital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Developmental History, Parent Personality and Child Difficulties." in Hinder, A. and Hinde, Stevenson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Mutual Influen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urphy, C. & O'Leary, K. D. 1989. "Psychological Aggression Predicts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pp.579~582.
- Newberger, C. M. & White, K. M. 1989. "Cognitive Foundation for Parental Care." in

- Chicchetti, D. & Carlson, V.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 1995.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Through Social Support: Critical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Gladow, N. & Ray, M. P. 1986. "The Impact of Informal Support Systems on the Well Being of Low Income Single Parents." *Family Relations*, 35.
- McInnis-Dittrich, K. 1996. "Violence Prevention: An Ecological Adaptation of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Families in Society*, vol. 77 (7) pp. 414~425.
- Poertner, J., Smith, P. B. and Fields, J. 1991. "Quality Control in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13.
- Simons, R., Whitebeck, L. B., Melby, J. N. & Wu. C. 1994. "Economic Pressure and Harsh Parenting." in Conger, R. D. and Elder, G. H. (eds.).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ew York: Adline.
- Simons, R. L., Christine Johnson. 1996. "The Impact of Marital and Social Network Support on Quality of Parenting." in Pierce, G. R., Sarason, B. R. and Irwin G. Warason (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 Powell, D. R. 1980. "Personal Social Networks as a Focus for Primary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 pp. 232~239.
- Stilwell, E. & Manley, B. B. 1990. "A Family Focus Approach to Child Abuse Prevention."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0, pp. 578~585.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1 (1) Feb.
- Wanderman & Unger. 1983. "Interaction of Infant Difficulty and Social Support in Adolexcent Mothers." in Pierce, G. R., Sarason, B. R. & Sarason, G. I. (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 Tracy, E. M. and Whittaker, J. K. 1987. "The Evidence Base for Social Support Interventions in Child and Family Practice: Emerging Issues for Research and Practi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9.
- Whipple, E. 1999. "Reaching Families with Preschoolers at Risk of Physical Child Abuse: What Works?" *Families in Society*, March. pp. 148~159.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pp. 63~70.

Impact of Parent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Program on the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Parenting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Yoon, Hye-Mee

(Associate professor of Chungbuk University)

This paper describes the results from a prevention program for low-income mother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iming at the positive change on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parenting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The program duration was 8 weeks and consisted of two parts: parent education on understanding parent-child relationship, communication skill improvement, techniques of problem solving, non-punitive child rearing techniques; and the recognition and use of existing social support network including networking of the neighborhood resources. The pre-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 was employed.

The results are: the program is effective on bringing some positive changes on all three variables;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parenting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crease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bove variables except the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To decrease the risk factors as well as to increase the protective factors of child abuse, well designed parent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program is recommended on every community level.